



▶ 김기라의 영상작품 '이념의 무게'



◀ 윤수연의 '위장'

# 백령도·철원에 남겨진 전흔... 어루만지다, 희망을 심다

## 정전 60주년 기념전 잇달아

서해 최북단 백령도,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을 상징한다. 정전 60주년이나 됐지만 분단의 아픔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곳들이다. 여전히 무장군인들이 오가고, 날카로운 철조망은 견고하며, 쓰라린 전쟁의 흔적들이 웅이처럼 박혀 있다.

평화, 화해와는 먼 남북관계를 대변하듯 긴장감이 감도는 백령도와 DMZ 접경지역이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변했다. 곳곳에 전시된 회화와 설치, 영상, 사진 등 많은 현

대미술 작품들은 작가들의 예민한 예술적 감성에 힘입어 분단 현실, 나아가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다각도로 각성시킨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의 아픔이 절실히 느껴지는 철원 DMZ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27일 '리얼 디엠티 프로젝트 2013-보더라인'이 개막됐다. 9월22일까지 열리는 프로젝트는 13명(1개팀 포함)의 작가가 20여 작품을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철원 평화전망대, 소이산 등에 펼쳐놓았다. '보더라인'(경계)을 주제로 철책선 등 물리적 경계는 물론 군인과 주민간, 주민들의 세대간 심리적 경계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탈북자와 분단문제를 주제로 작업해온 윤수연은 철원에서 찍은 사진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 옷으로 만든 뒤, 그 옷을 입은 주민들과 함께 최초 사진의 배경이 됐던 장소에 가 사진작업을 했다. DMZ 접경지역의 일상적이면서도 불편한 이미지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함양이는 DMZ 환경에 대한 관심을 영상작품으로 해석했고, 구정아는 철원 지역에서 수집한 돌로 설치작품을 만들어 철원이 지닌 지역성·특수성을 이야기한다. 이주영, 히만 청(싱가포르), 폴 카잔더(캐나다) 등도 참여했다.

철원군과 전시기획사 '사무소'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도 열린다. 서울에선 알프레드 하르트(독일)의 설치, 건축가 김태형의 아카이브가 선보인다. 이어 8월22일부터는 '리얼 디엠티 프로젝트 2013-프롬 더 노스'란 이름 아래 노순백, 백승우, 차엔치창(대만), 히로시 미나미시마(일본)가 북한을 주제로 한 사진·영상 작품을 내놓는다. 매주 토요일 철원지역 전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02)733-8944.

대치 상황이 60년째 이어지고 있는 백령도에서는 27일 인천아트플랫폼의 특별기획전 '백령도-525,600시간과의 인터뷰'가 막

을 올렸다.

40명의 작품 60여점이 백령도 내 26개 대피소 중 진촌리 일대 4개소, 심청각, 백령성당과 병원 등에 자리했다. 늘 긴장 속에 일상을 꾸려오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 지난 60년 52만5600시간 동안 섬에 쌓인 다양한 이야기들, 심청의 인당수 같은 지정학적 특성 등이 작품에 녹아들었다.

무엇보다 이전 백령도가 남북한 '대치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꿈, 희망이 서린 작품들이다.

김기라는 영상작품 '이념의 무게'에서 이념을 훌쩍 넘어서서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남북 주민을 이야기한다.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병 속에 담아 바다에 20여개 보낸 작업 등도 영상에 담았다. 재일교포 3세인 김수미는 어린이들과 형제로 만든 장미꽃을 철조망에 매달아 날카로운 대치 이미지를 평화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이종구, 서용선, 이수영, 이인, 김보섭, 백령도 출신 작가인 최성숙 등도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기획전은 8월7일까지 백령도에서 열린 뒤, 8월14일부터 10월6일까지 20여명 작가가 더 참여해 인천 아트플랫폼 등에서 계속된다.